

# 『金匱要略』에 나타난 水氣의 種類에 대한 考察

宋杜日·李正泰\*\*·金容辰\*

## 對『金匱要略』中出現的水氣種類的研究

宋杜日·李正泰\*\*·金容辰\*

\*大田大學校 韓醫學科 原典學專攻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通過對『金匱要略·水氣病脈證并治』內容中水氣病分類方法的研究, 得出如下結論:

1. 水氣病根據脈·症·因等的差異, 可分爲風水·皮水·正水·石水·黃汗等五種類型; 而且根據水氣病的形成和五臟的關係, 可分爲心水·脾水·肝水·肺水·腎水等五種類型; 根據水氣病的演變情況, 可區分爲水分·氣分·血分等證. 這是掌握水氣病的病機·病位和病情變化的最爲便利的方法.
2. 五臟功能失常是發生水氣的根本, 所以治療『金匱要略』五臟水時, 必須要遵照證狀的表裏寒熱虛實進行辨證施治. 以腎水爲例, 因腎陽虛致水聚成腫時, 治法上應以溫腎利水, 方可選用真武湯.
3. 心水的原文‘煩而躁’中的‘躁’字改爲‘悸’字, 覺得更爲恰當.

## I. 緒論

張仲景의 『傷寒雜病論』 16卷은 出刊된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에 전하여 지지 않게 되었다. 그 중에서 傷寒部分은 魏晉時代 王叔和에 의해 정리 되어 3世紀末부터 世上에 전해져 왔으나, 雜病部分은 제대로 전해 내려오지 못하다가 1065年 北宋의 校正醫書國에서 王洙가 發見한 『金匱玉函要略方』을 編輯·校訂하여 그 중의 傷寒部分은 빼 버리고 雜病에서부터 飲食禁忌에 이르기까지 25篇으로 만들어 『金匱要略方論』 三卷을 만들었으니 이것이 현재의 『金匱要略』이다. 『金匱要略』에서 다른 疾病은 內科·雜病을 위주로 하였으나 外科·婦人科의 내용도 兼하였다. 外科는 겨우 一篇이

며 婦人科와 有關한 것이 三篇이며 急救 및 食禁 등과 有關한 내용이 三篇이며 기타 十八篇은 모두 內科病의 辨證治療에 관한 것이다<sup>2)</sup>.

이중에서 필자는 『金匱要略·水氣病脈證并治』에 나타난 浮腫에 대한 張仲景의 思想에 대하여 접하게 되어 이를 더욱 깊게 연구하게 되었다.

본 편의 첫 머리는 浮腫의 종류를 風水·皮水·正水·石水·黃汗의 다섯가지로 나눈 것으로 시작하였으며, 五臟과 關係하여 五臟水로 나누어 說明한 內容이 보이며, 氣分, 血分, 水分으로 水氣病을 나누어 說明한 內容을 볼 수 있다. 이는 水氣病을 分類하는 세 가지의 方法이 되는데, 이에 대하여 각 條文別로 內容을 研究하여 水氣病을 分類하는 方法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본 研究는 『金匱要略』의 原文에 대한 懸吐와 解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겸임교수  
· 교신저자 김용진, king@dju.ac.kr  
· 채택일 : 2005년 11월 24일

2) 洪元植 尹暢烈, 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p. 174, 2001.

釋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後世 注釋家들의 注釋을 綜合하여 考察하는 方法으로 試圖하였다.

## II. 研究內容

### 1. 四水와 黃汗

師曰 病有風水 有皮水 有正水 有石水 有黃汗이라 風水는 其脈自浮하고 外證이 骨節疼痛하고 惡風이라 皮水는 其脈亦浮하고 外證 肘腫하고 按之沒指하고 不惡風하고 其腹如鼓하고 不渴이나 當發其汗이라 正水는 其脈沈遲하고 外證自喘이라 石水는 其脈自沈하고 外證腹滿하고 不喘이라 黃汗은 其脈沈遲하고 身發熱하고 胸滿하고 四肢頭面腫하야 久不愈면 必致癰膿이라

#### 【解釋】

스승께서 이르시기를, 水腫病에는 風水·皮水·正水·石水와 黃汗의 五種이 있다. 風水의 脈은 浮하며, 外證은 骨節疼痛하고 惡風이 있다. 皮水の 脈도 역시 浮한데, 外證은 浮腫이 있고 按診하면 陷凹되어 누르는 대로 손가락이 陷沒되며 惡寒은 없고 病人의 腹部는 如常하며 脹滿도 없고 口渴도 없다. 治療는 모두 發汗시킴이 마땅하다. 正水의 脈은 沈遲하며 外證은 氣喘이 있게 된다. 石水의 脈은 沈한데, 外證은 腹部脹滿이 있고 氣喘은 없다. 黃汗은 그 脈이 沈遲하며, 身體發熱과 胸滿이 있고 四肢와 頭面部에 腫이 있는데, 오래도록 낫지 아니하면 반드시 癰膿에까지 이르게 된다.

#### 【考察】

본 條에 나타난 水氣病의 分類에 의하면, 水氣病은 風水·皮水·正水·石水·黃汗의 다섯 類型으로 分類된다.

風水는 「靈樞·四時論」에서 風痰(“痰”與 “水”通)라 稱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黃帝內經素問·湯液醪醴論」에서는 “從風而水 ……”이라 하였다. 즉, 風水는 風邪外襲으로 皮毛受傷하고 肺氣가 不宜하게되어 通調水道의 機能이 圓滑하지 못하게 되므로 津液運行이 障礙를 받아 水濕이 停聚하게 되고, 그것이 肌表로 泛溢하여 된 것이다. 風邪犯表한데 水溢肌膚한 것은 邪在表한 것이니, 風水의 脈이 浮하게 나타나는 것이며 그 症狀에 惡寒이

있게 된다. 風과 水濕의 邪가 肌表에 阻滯되어 關節肌表의 氣가 痹阻不通하므로 骨節疼痛의 증상도 나타난다. 이 외에 風은 陽邪가 되고 그 性이 輕揚하여 浮於上하므로 「素問·風論」에서 말한 “頭面腫曰風”의 根據가 되며, 頭面浮腫, 咽痛, 或 咽痒의 症狀이 常見된다. 개괄하여 말하면, 風水는 風邪外襲하여 肺失宣肅하고 通調의 기능을 失常하여 된 것이다.

皮水는 肺主通調水道와 脾主轉輸의 機能이 失調되어 津液代謝가 障礙를 받아서 水濕之邪가 肌膚·四肢之間에 停留된 것이므로 그 脈이 浮하며 周身浮腫하고 按之凹陷하여 指被埋沒하게 된다. 皮水는 外邪의 所致가 아니므로 不惡風하고 表證이 없다. 皮水病의 初起에는 水濕之邪가 在表하고 아직入裏하지 않은 同時에, 또한 化熱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口不渴”하다. 風水와 皮水가 모두 “發其汗”으로 治之하는데, 이에 대해서 俞嘉言은 “皮毛者, 肺之合也, 肺行榮衛, 水演皮間, 榮衛之氣腠鬱不行, …… 發汗以散皮毛之邪, 外氣通則內郁自解耳.”라 하였다.(「醫門法律·水腫論」)

正水는 腎陽不足으로 蒸化津液이 어렵게 되어 水濕이 內停하게 되고 虛寒의 氣가 더욱 甚해져서 된 것이므로 脈沉遲하다. 沉遲는 正水의 主脈인데, 仲景 역시 이것으로써 正水의 病位가 在裏하고, 病機는 腎陽不足하여 水寒內停한 것이라 하였다. 足少陰腎의 經脈이 絡于肺하므로, 水寒之氣가 循經脈하여 上犯於肺하니 肺氣를 不利케 하여 上逆하게 하므로 “自喘”의 증상이 나타난다. 正水의 病이 되는 것은, 「素問·水熱論」에 이르기를 “腎者, 胃之關也, 關門不利, 故聚水而從其類也. 上下溢於皮膚, 故爲肘腫·大腹, 上爲喘呼”라 하였으니, 正水가 喘이 主症이 되는 것 외에도, 마땅히 浮腫, 腹大等の 症이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醫門法律·水腫論」에는 “其脈沉遲, 外證自喘, 北方壬癸自病, 陽不上通, 關門閉而水日聚, 上下溢於皮膚, 肘腫腹大, 上爲喘呼, 不得臥, 腎本肺標, 子母俱病也”.라는 내용이 있다.

“石水”라는 말은 「素問·陰陽別論」에서 처음으로 보이는데, “陰陽結斜, 多陰少陽曰石水, 少腹腫”이라 하여 石水가 形成되는 原因과 그 主症에 대해

여 說明하였다. “斜”는 곧 “邪”의 意味인데, “多陰”은 水寒·瘀血의 陰邪가 盛함을 가리키고, “陽少”는 陽氣虛衰를 말한다. 石水의 病位는 主로 肝腎에 있는데, 그 근거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는 『素問·太奇論』에서 “肝腎並沉爲石水”라 한 것이고, 둘째는 原文에서 말한 “少腹滿”으로 少腹은 下焦에 속하고 肝腎이 주하는 바가 된다. 이를 통해서, 陽虛는 腎陽虛이고 肝病은 마땅히 그 經脈에 瘀血이 鬱滯한 것이며, 肝腎의 병이 脾에 미친 즉 腹滿하고, 肺는 받지 않은 즉 不喘한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石水는 腎陽虛가 極에 달하고 水寒과 瘀血이 下焦肝腎에 凝結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主症은 少腹腫硬脹滿한 것이 石과 같은데, 當然히 肝經이 循行하는 部位에 있으며 脅下 脹痛等症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諸病源候論·石水候』에 “腎主水, 腎虛則水氣妄行, 不依經絡, 停聚結在臍間, 小腹腫大硬如石, 故雲石水. 其候, 引脅下脹痛而不喘是也.”라는 구절이 있다.

黃汗은 汗出하는 色이 黃色인 故로 이름 지어졌고 그 主症은 周身出黃汗이 되는데, 이것과 關節痛處에 黃水가 泛溢하는 “曆節黃汗出”과는 다르다. 黃은 脾의 本色인데, “黃汗其脈沉遲”에 의거하여 그 本이 脾에 있음을 추론할 수 있고, 脾病은 濕阻하여 氣機不暢하게 된 則 脈沉遲하고, 濕遏衛表하고 營氣被鬱하게 된 則 發熱하게 되며, 濕阻胸陽하게 된 則 胸滿하고, 水泛四肢頭面한 則 四肢頭面腫이 있게 된다. 黃汗病이 經久不愈하여 濕久化熱하게 되면 營氣가 阻滯되어 보통 血敗肉腐하고 釀成癰膿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素問·生氣通天論』에서 말한 “營氣不從, 逆於肉裏, 乃生癰腫”의 뜻이다.

本條는 四水와 黃汗에 대하여 논하였고, 水腫病의 形成이 肺失宣降하여 通調失職하는 것과 脾失運化하여 轉輸不能하는 것 그리고 腎失開合하여 蒸化失職하게 됨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당연히 三焦 역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 2. 五臟水

心水者는 其身重而少氣이고 不得臥이고 煩而躁이고 其人

陰腫이다

### 【解釋】

心水는 病人이 身重하고 少氣하며 不得安臥하고 心煩·躁하며 病人의 陰囊이 水腫하게 된다.

### 【考察】

本條에서 第17條까지에서는 五臟水의 證候를 分別하여 論述하고 있다. 五臟水라고 하는 것은 五臟本身에 水가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肝·心·脾·肺·腎의 機能異常으로 水氣內停하게 되어 나타나는 種類의 腫病을 말하는 것이다. 本條에서는 그 중에서 心水의 證候를 論述하였다.

“心水者”는 心陽不足으로 因해 水氣凌心하여 생긴 水腫病을 말한다. 그 症狀 中에서 “身重”은 身體沉重하고 腫이 있는 것인데, 이는 心陽不足으로 水邪偏盛하여 내부에 蓄積되어 생긴 것이다. “少氣”는 氣少함을 가리키는데, 水氣浸漬하여 氣機가 阻礙된 所致이다. 한편, 心陽(氣)虛하여 水氣가 上凌하는데 臥하게 되면 다시 逆하므로 不得臥하게 된다. 心陽被遏함이 漸次로 甚해지면 心煩躁하고 動搖不安하게 된다. “躁”字에 대해서 “悸”로 함이 마땅하다고 하는 醫家의 說이 있는데, 心에 病이 있을 때 心悸가 主症의 하나가 되므로 可히 參考할만 하다. 前陰은 腎이 主하는 바가 되는데, 心陽不足하여 火가 아래로 腎과 交通하지 못하게 되면 腎臟이 主水하는 職務를 다하지 못하게 되어 水가 前陰으로 溢하게 되므로 “其人陰腫”이 나타나게 된다.

肝水者는 其腹大이고 不能自轉側이고 脅下腹痛하고 時時津液微生이고 小便續通이다

### 【解釋】

肝水는 病人의 腹部가 腫大하여 스스로 輾轉反側할 수 없으며 脇下와 腹中이 疼痛하고 時時로 津液이 微生하며 小便이 때로 不利하고 또한 오래지않아 때로 通利한다.

### 【考察】

本條에서는 肝水의 證候에 대하여 論述하였다. “肝水者”는 肝虛로 疏泄機能이 低下되어 水가 犯肝함으로 인해 생기는 水腫病을 가리킨다. 肝病으로 肝氣乘脾하여 脾失運化케 되어 水濕이 偏盛

하게 되고 腹에 蓄積되므로 “其腹大, 不能自轉側”하게 된다. 厥陰之脈은 少腹에서부터 上行하여 循脊肋하게 되는데, 水犯于肝하면 肝氣가 阻礙되어 乘脾土하므로 經脈不和하게 되어서 脅下와 腹이 皆痛하게 된다. 肝失疏泄로 木乘土位하게 되어 脾氣가 不舒하고 失其轉輸하게 되면, 三焦之氣가 不暢하게 되므로 津液이 正常的으로 輸布되지 못하며 氣化失常케 되어 “時時津液微生”하게 되므로 “小便續通”하게 된다. “時時津液微生, 小便續通”은 마땅히 尿形成이 不多하여 小便量이 少하다고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의 “津液”은 마땅히 尿로 보아야 하는데, “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의 ‘津液’과 같은 뜻이다.

肺水者는 其身腫하고 小便難하고 時時鴨漉이라

【解釋】

肺水는 病人의 身體가 腫하며 小便難하고 大便이 溇泄하여 水와 糞이 섞여 나오는 것이 鴨子가 排便하는 것 같다.

【考察】

本條에서는 肺水의 證候에 대하여 論述하였다. “肺水者”는 肺氣虛弱으로 인해 主氣·治節·通調水道等の 機能失調로 인해 생긴 水腫病을 가리킨다. 그 主症에는 “身腫, 小便難, 時時鴨漉”이다. 肺虛不能主氣로 인해 通調機能을 發揮하지 못하여 津液停聚하게 되어 身腫하게 되고 膀胱氣化失常하게 되므로 小便不利(量少)하게 된다. 한편, 肺는 大腸과 表裏가 되는데, 肺虛로 通調失職하여 水走腸間하고 大腸의 傳導機能異常이 있게 되어 水와 糞이 混雜되어 나오게 되니 大便溇泄하게 되어 鴨의 便과 같으니 鴨漉이라 칭하는데, 『金匱方論衍義』에서 “水不得從小便出, 反從其合與糟粕混, 成鴨漉也.”라 한 것이 그것이다. 概括하면, 肺水는 肺虛의 所致이며 또한 그러한 가운데 水實함이 있는 所致이니, 曹穎甫이 “肺主肅降, 肺氣爲水邪所阻, 則水邪不降, 而身爲之腫.”이라 한 것과 같다. 臨床에서 보면 肺水에는 當然히 虛實의 區別이 있으니 疏忽히 하지 말아야 한다.

脾水者는 其腹大하고 四肢苦重하고 津液不生하고 但苦少氣하고 小便難이라

【解釋】

脾水는 病人의 腹部가 膨大하고 四肢苦重하며 津液不生하고 단지 少氣하여 飢로워하고 小便難하게 된다.

【考察】

本條에서는 脾水의 證候를 논술하였다. “脾水”는 脾陽이 虛弱하여 水濕이 泛溢於肌膚하게 되어 생긴 水腫病이다. 腹은 脾의 位가 되고 脾主四肢하므로, 脾虛失運하여 津液을 轉輸하지 못하면 水濕이 內生하여 盛하게 되어 水로 인해 脾가 困하게 되니 “腹大”하게 되고, 水泛四肢하게 되니 “四肢苦重”케 된다. 『素問·六節藏象論』에서 脾胃는 “倉廩之本, 營之居也”라 하였는데, 脾氣가 虛弱하면 營衛氣血의 生化之源이 不足하게 되어 少氣하게 된다. 또한, 脾虛하여 津液을 肺로 散布하는 機能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小便難”이 나타나게 된다.

腎水者는 其腹大하고 臍腫하고 腰痛하고 不得溺하고 陰下濕이 如牛鼻上汗하고 其足逆冷하고 面反瘦라

【解釋】

腎水는 病人의 腹部가 膨大하고 臍部가 腫起하고 腰痛이 있으며 小便排出이 困難하고 前陰部에 冷濕이 마치 소의 코 위에 있는 땀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病人의 足部가 逆冷하고 面部는 반대로 瘦한다.

【考察】

本條에서는 腎水의 證候에 대하여 論술하였다. 腎水는 腎陽不足으로 不能化氣行水하게 되어 水濕이 內停하게 되어 생긴 水腫病으로서, 正水의 範疇에 屬하는 경우가 많다. 腎者는 胃之關이며 또한 水臟이 되는데, 腎陽이 虛弱하여 不能化氣行水하면 水聚於下하게 되어 關門不利하게 되며 水反侮土하게 되므로 脾가 病들어 腹大臍腫의 症狀이 보인다. 腎陽不足으로 寒水之氣가 內停하면 腎之外府를 傷하고 陽氣가 阻礙되어 絡脈不通하게 되므로 腰痛이 나타난다. 腎과 膀胱은 表裏가 되는데, 腎氣虧損하고 膀胱氣化不利하니 “不得溺”하게 된다. “陰下”는 여기에서는 前陰을 가리킨다. 腎은 開竅于二陰하는데, 寒水之氣가 下注하여 淫溢于前陰하니 外陰潮濕하게 되는 것이 마치 牛鼻

上出汗과 같이 된다. 脾主四肢하는데, 腎陽虛損하면 脾失溫煦하게 되므로 兩足이 逆冷케 된다. 腎虛로 臟腑失養케 되고 氣血陰精이 充實함을 잃게 되면 身體肌肉이 失養케 되어 ‘面反瘦’가 나타난다.

腎水는 水勢가 極盛하여 泛溢于周身할 경우에 나타나는 것인데, 臨床에서 面部가 虛浮하나 瘦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面反瘦”는 腎水의 必須症狀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五臟水와 水在五臟은 서로 다른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서로 聯關性이 있다. 두 가지 모두 肺·脾·腎의 通調·轉輸·蒸化機能의 異常으로 인해 津液運행에 障礙를 받아 水濕 或은 飲邪가 結聚되어 형성되는 것인데, 前者는 心·肺·脾·肝·腎等과 같은 臟의 損傷으로 機能異常이 초래되어 發生하는 五種의 水腫病을 말하는 것이고, 後者는 飲邪가 心·肺·脾·肝·腎에 波及되어 形成되는 五種의 飲病이다. 이에 대해 徐忠可是 “臟中非眞能蓄有形之水, 不過飲氣浸之.”라 하였다. 前者는 腫·溲少가 主症이 되고, 後者는 一般的으로 無腫하며 小便量少가 나타날 수 있고, 飲邪가 어떤 臟을 犯했는가에 따라 症狀에 區別이 있게 된다. 다만 두 가지가 相互轉化될 수도 있고, 때로는 分間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臨床에서 보면 先病痰飲而後變生水腫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先病水腫而後漸生飲病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히 觀察해 보아야 한다.

五臟水는 一般的으로 正水之類에 屬하는 경우가 많은데, 『金匱要略』에는 그 治法에 대한 方藥의 제시가 되어있지 않다. 다만, 五臟機能의 失常이 水氣를 發生시키는 根本이 되므로 五臟水를 치료할 때에는 반드시 證狀의 表裏寒熱虛實을 따져 이치에 맞게 하여야 한다. 腎水를 예로 들면, 腎陽虛로 인해 水聚成腫한 경우, 治法은 마땅히 溫腎利水해야 하니 眞武湯을 選用할 수 있다. 또한 腎陽不足하여 水泛肌表한 경우는 마땅히 溫腎發汗利水의 治法을 써야 하니 麻黃附子湯을 쓸 수 있는 것 등이다.

### 3. 血分, 水分, 氣分

師曰 寸口脈이 沈而遲하니 沈則爲水하고 遲則爲寒이라

寒水相搏하고 趺陽脈伏하면 水穀不化하여 脾氣衰則驚瀉하고 胃氣衰則身腫이라 少陽脈卑하고 少陰脈細하여 男子則小便不利하고 婦人則經水不通하니 經爲血하고 血不利則爲水名曰血分이라

#### 【解釋】

스승께서 이르시기를: 寸口脈이 沈而遲한 것은, 脈沈한 즉 水가 있는 것이고 脈遲한 즉 寒이 있는 것인데 寒과 水가 相搏하여 脾胃陽氣를 損傷시켜서 趺陽脈이 伏하게 되고 水穀이 不化하며 脾氣가 衰한 즉 鴨糞처럼 水와 糞이 섞여 나오며 胃氣가 衰한 즉 身腫하게 된다. 少陽 三焦의 脈이 微하고 少陰 腎의 脈이 細한 것은, 男子는 즉 小便不利하고 婦人은 즉 經水不通한다. 經水는 血이 되는데 血不利한 즉 水가 되니 이를 血分이라 이름 한다.

#### 【考察】

本條에서 血分에 대하여 설명한 부분은 腎虛血瘀로 될 수 있는 水腫을 설명한 것인데, 原文에서 “少陽脈卑”에서부터 “名曰血分”까지의 내용이 이것이다. 三焦는 “決瀆之官”인데, “少陽脈卑”라고 하는 것은 手少陽三焦之脈이 沉弱함을 가리키며 三焦의 決瀆機能의 失調를 가리킨다. 腎은 主水하고 司二便하는데 “少陰脈細”는 足少陰腎脈이 細함을 가리키며, 腎虛血少한 象을 나타낸다. 腎과 膀胱은 表裏가 되며, 腎虛로 膀胱氣化不利하고 腎虛로 三焦가 決瀆之官의 역할을 하지 못하며 腎虛로 主水하지 못하게 되므로 男子에게 있어서는 小便不利로 표현된다. 여기서의 小便不利는 量少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注意할 점은 女子에게도 역시 小便量少한 것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素問·上古天真論』에서 “太沖脈盛, 月事以時下 …… 太沖脈衰, …… 地道不通”이라 하였는데, 沖脈의 盛衰가 月經의 來潮에 重要하게 作用함을 설명하고 있다. 『靈樞·動輸』에서는 “沖脈者, 十二經之海, 與少陰之大絡起於腎.”이라 하였는데, 이 說을 통해 보면 腎氣虛弱이 沖脈虛衰를 초래하여 婦人經水不通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血은 經水之源이므로 “經爲血”이라 한 것이다.

張景岳은 “或以敗精, 或以搞血, 阻塞水道而不通也”이라 하였는데, 만약 血行不暢하고 甚하면 瘀血을 形成하게 되어 經血閉阻와 氣滯가 반드시

나타남을 말하고 있다. 津液의 運行은 氣의 推動에 의지하고 있는데, 氣滯하면 津液運行이 不暢하게 되므로 水濕이 內生하게 되고, 水濕이 泛溢於肌膚하여 腫이 되므로 “血不利, 則爲水.”라 하였다. “血分”은 經血不暢하거나 瘀阻함으로 水腫이 되는 것이므로 原文에서 “經爲血, 血不利則爲水, 名曰血分.”이라 하였다. 血分の 症狀과 原因, 그리고 治法에 대하여 『仁齋直指方·腫證』에 “經脈不行, 血化爲水, 四肢紅腫, 則曰血分, 皆水氣之所由作也, 血分宜桂苓湯(方由桂皮·赤茯苓·當歸·川芎·赤芍·蓬術·三棱·桑白皮·檳榔·蒼術·大腹皮·青皮·陳皮·瞿麥·甘草·葶藶·大黃·葶藶組成)”라는 내용이 있다.

問曰 病有血分水分何也 師曰 經水前斷하고 後病水를 名曰血分이라하니 此病難治라 先病水하고 後經水斷을 名曰水分이라하니 此病易治라 何以故오 去水하면 其經自下라

#### 【解釋】

물어 이르기를 : 病에 血分과 水分이 있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스승께서 이르시기를 : 經水가 먼저 끊기고 後에 水病이 있는 것을 이름 하여 血分이라 하는데 이 病은 難治이다. 水病이 먼저 있고 後에 經水가 끊긴 것은 이름 하여 水分이라 하는데 이 病은 쉽게 치료된다. 어떠한 연유로 그러한가? 水를 去하면 그 經은 自然히 下하게 된다.

#### 【考察】

本條에서는 水腫病에서의 血分과 水分의 區別에 대하여 論述하였다. 男女生理에 있어서 주된 區別點은 女子에게는 經血이 時下하는 特徵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水腫病이 있더라도 女子에게는 血分과 水分의 區別이 있게 된다. 上條에서 “血不利, 則爲水, 名曰血分”이라 한 것과 本條에서 “經水前斷, 後病水, 名曰血分”이라 한 것은 같은 것으로, 모두 經血瘀阻不通으로 津液運行에 障礙가 생겨 津液이 蓄積되어 水가 되며, 그것이 肌膚로 泛溢하여 腫病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心典』에서는 “血分者, 因血而病爲水也.”라 하였는데, 經血瘀阻不通의 原因으로 된 것이 매우 많고, 或은 外感·內傷·七情 등으로 因한 것도 있다. 또한 正虛·邪實·正虛邪實로 因하여 되는 경우도

있다. 血分病은 瘀血로 因하여 津液이 聚結되어 水가 되어 發하는 것으로, 瘀血과 水氣의 病變이 섞여 나오므로 그 病情이 複雜하고 病程이 길며 病位가 깊고 病勢가 重하면서 治療함에 있어서 速效를 보기 어렵다. 이것이 原文에서 “此病難治”라고 말한 理致이다. 血分病을 治療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祛瘀利水로 原則을 삼는데, 그 具體的인 治法을 活用하는데 있어서는 마땅히 辨證論治를 充實히 해야 한다.

水分病은 水腫으로 因해 閉經에 까지 이른 것인데, 이것은 原文에서 “先病水, 後經水斷, 名曰水分”이라고 말한 것이 된다. 이는 水邪로 因해 血脈이 阻滯되어 血行不暢과 沖脈失調로 이루어진 것으로, 水邪가 血脈에 影響을 미쳐 病이 된 것이므로 “水分”이라 하였다. 이는 『心典』에서 “水分者, 因水而病及血也”라 말한 뜻이다. “此病易治”는 血分病과 相對를 이루어 말한 것으로, 이는 前者와 比較하여 後者의 病位가 淺하다는 말이다. 당연히, 水邪가 祛除된 後에는 經水即通하게 되므로 易治라 한 것이다. 實際로는 臨床時에 水分病도 역시 治療가 어렵다. 水腫의 原因이 매우 많고, 같은 樣相이라 해도 外感·內傷·七情 등의 다른 原因이 있으며 病情도 역시 虛·實 或은 虛實夾雜의 區別이 있는 등 水分病의 病情이 대단히 複雜하기 때문에 治療 역시 결코 쉽지 않다. 本病의 治療原則은 마땅히 利水消瘀通經함을 爲主로 하나, 그 具體的인 治法에는 역시 辨證施治가 重要하다.

以上の 內容을 살펴보면, 仲景이 水氣病을 分類는 方式에 세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水氣病의 脈·症·因의 差異에 根據하여 水氣病을 風水·皮水·正水·石水·黃汗의 五種으로 分類하였다.

둘째로 水氣病의 形成과 五臟의 關係에 根據하여 水氣病을 心水·脾水·肝水·肺水·腎水 등의 五種으로 分類하였는데, 이는 보통 五臟水라 불린다.

셋째로 水氣病의 演變情況에 根據하여 水分·氣分·血分으로 區別하여 稱하였다. 이는 『丹溪心法·水腫』篇에서 水氣病을 陰·陽의 兩大類로 分類한 것에 비하면 보다 複雜하지만, 水氣病에 대한 概

括的인 認識과 水氣病의 病機·病位와 病情變化 등을 把握하는 데에는 보다 유리하다 하겠다.

師曰 寸口脈이 遲而澀하나니 遲則爲寒이오 澀爲血不足이라 跌陽脈이 微而遲하나니 微則爲氣이오 遲則爲寒이니 寒氣不足則手足逆冷하고 手足逆冷則營衛不利하고 營衛不利則腹滿脅鳴相逐이라 氣轉膀胱이아 營衛俱勞하니 陽氣不通하면 卽身冷이오 陰氣不通하면 卽骨疼이라 陽前通則惡寒이오 陰前通則痺不仁이니 陰陽相得이라야 其氣乃行하고 大氣一轉이라야 其氣乃散하고 實則失氣오 虛則遺尿나 名曰氣分이라

#### 【解釋】

스승께서 이르시기를 : 寸口脈이 遲而澀 한 것은, 遲脈은 寒이 되고 澀脈은 血不足이 된다. 跌陽脈이 微而遲한 것은, 微한 즉 氣不足이 되고 遲한 즉 裏有寒이 된다. 裏有寒에 氣不足이 加해진 즉 手足逆冷하게 되고, 手足逆冷한 즉 榮衛運行이 不利하게 되고, 榮衛不利한 즉 腹滿腸鳴이 不止하게 된다. 寒氣가 轉入膀胱하여 榮衛가 모두 虛勞하게 된 것이다. 陽氣가 不通한즉 身冷케 되고, 陰氣가 不通한 즉 骨節疼痛케 된다. 陽氣가 斷絶되어 流通한 즉 惡寒하고 陰氣가 斷絶되어 流通한 즉 麻痺不仁하고 陰陽之氣가 相合하여 運行하면 營衛之氣가 이에 行하여 中氣가 流通轉輸되면 寒氣가 消散되며, 實한 즉 矢氣가 나오고 虛한 즉 遺尿하게 되는 것을 이음하여 氣分이라 한다.

#### 【考察】

本條에서는 氣分病의 病機와 症狀 그리고 治法과 虛實에 대하여 論述하였다. “寸口脈遲而澀”에서 “遲則爲寒”까지는 氣分病의 病機를 脈象을 통하여 論述하였다. 寸口脈은 主心肺하는데, 遲는 主寒하고 澀은 主血不足하는 것이니 氣不暢하게 되는 것이다. 肺有寒하고 心血이 적으며 氣滯가 있으므로 “寸口脈遲而澀”하게 된다. 跌陽脈은 脾(胃)를 反映하는데, 微는 主不足을 주하는데 “微則爲氣”라고 한 것을 보면 “微”는 氣不足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遲는 主寒하는데 “跌陽脈微而遲”는 脾(胃)陽虛로 有寒한 것을 主한다. 上述한 내용을 통해 보면, 寸口와 跌陽의 脈象으로 氣分의 病機가 陽氣虛弱, 氣血不足, 寒氣凝滯

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尤怡가 概括하여 말하기를 “氣分, 謂寒氣乘陽之虛, 而病於氣也.”라 하였다.

“寒氣不足 …… 陰前通則痺不仁”의 내용은 氣分의 症狀에 대하여 說明하였다. 脾主四肢하는데 脾虛有寒하여 手足不得溫煦한데다가 營衛之氣의 不利함이 더해지니, 陽氣가 四肢에 達하기 어렵게 되므로 “手足逆冷”하게 된다. 그러므로 “手足逆冷, 則營衛不利”라고 한 것은 “營衛不利, 則手足逆冷.”으로 이해할 수 있다.

“營衛不利, 則腹滿脅鳴相逐”의 “營衛”二字와 “脾胃”는 서로 호응하는 말로 理解할 수 있다. 『素問·營衛生會篇』에서는 “人受氣于谷, 谷入於胃, …… 其清者爲營, 濁者爲衛, 營在脈中, 衛在脈外.”라 하였다. 또한 胃와 脾는 表裏가 되는데, 營衛는 모두 脾胃를 根源으로 하므로 營衛의 強弱과 脾胃의 關係는 매우 密接하다 하겠다.

營衛不利는 脾胃가 受損함을 說明하는데, 이로 因하여 여기서의 營衛不利는 脾胃不利로 이해할 수 있고, 脾胃之氣가 不利하면 受納·腐熟·運化機能의 失調로 腹滿腸鳴이 連續不斷하는 症狀가 나타난다. “氣轉膀胱”은 寒氣가 下焦에까지 이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렇게 되면 膀胱失約하게 되어 遺尿·小便失禁等症이 나타나게 된다. 『素問·生氣通天論』에서 “陰者, 藏精氣而起亟也; 陽者衛外而爲固也”라 하였는데, 營은 主內하고 衛는 主外하므로 營衛俱虛하면 陽氣의 運行이 不暢하게 되고 全身으로 傳達되기가 어려워 身體가 陽氣의 溫煦를 받지 못하므로 “身冷”하게 되고, 陰氣가 阻滯不行하여 精血이 骨을 滋潤하지 못하므로 “骨疼”하게 된다. 그러므로 “營衛俱勞, 陽氣不通卽身冷, 陰氣不通卽骨痛.”이라 한 것이다.

“陰陽相得 …… 其氣乃散”은 氣分病의 治療原則에 대하여 論述하였다. 氣分病은 陰陽失調의 所致이므로 마땅히 調和陰陽의 法으로 治療해야 하는데, 陰陽이 調和되면 陰平陽秘하고 精神乃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氣血運行이 通暢케 되고 營衛가 協調하게 되어서 人體의 正氣가 圓滑하게 運行하여 身體를 濡養하게 되므로 “陰陽相得, 其氣乃行.”이라 말한 것이다.

“大氣”는 胸中之氣로 『醫學衷中參西錄』에 이르기를 “胸中之氣獨名爲大氣者，誠以其能撐持全身，爲諸陽之綱領，包舉肺外，故鄭而重之曰大氣。”라 하였고 또 이르기를 “大氣爲其生命之宗主”라 했으니, 宗氣라 할 수 있다. “其氣”는 邪氣, 即 陰寒凝滯之氣를 가리킨다. 宗氣는 走息道하고 行呼吸하며 貫心脈하여 行氣血하는 것이다. 宗氣의 運行이 正常的이면 心肺의 機能 또한 正常이 되어서 身體의 陽氣가 제 역할을 다해 움직이므로 陰寒之氣가 散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大氣一轉, 其氣乃散.”이라 한 것이다.

水氣病을 治療하는 것은 氣를 어떻게 治하느냐가 重要한데, 이에 대하여 張景嶽은 “氣不能化, 所以水道不通, 溢而爲腫, 故凡治腫者必先治水, 治水者, 必先治氣, 若氣不能化, 則水必不利.”라 하였다.

“實則失氣, 虛則遺尿, 名曰氣分”의 내용은 氣分의 症狀이 虛와 實로 因하여 생길 수 있음을 說明하고 있다. 實한 것은 陰陽失調로 大氣不轉하여 氣滯하고 寒(水)之邪가 鬱結于內하여 鬱結된 氣가 後陰을 따라 나와서 矢氣가 되는 것이다. 虛한 것은 陽氣虛弱으로 腎氣不固하여서 膀胱失約하게 되어서 遺尿가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實한 것과 虛한 것 모두 氣分이 되므로, 條文에서 “氣分”이라 한 것이다. 여기에서의 氣分病은 陽虛와 陰寒凝滯로 생긴 病證으로 輕·重의 差異가 있는데 다음 두 개의 條에 詳細히 나와 있다.

한편, 原文中에서 말한 “實”과 “虛”는 實證과 虛證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여기서의 “實”은 邪氣를 가리키며, 具體的으로는 氣滯와 寒(水)邪를 가리킨다. 또, “虛”는 不足을 가리키는데, 即 陽氣虛를 가리킨다. 氣分病에서 矢氣의 증상을 볼 수 있고 또한 遺尿도 볼 수 있는데, 前者는 邪가 實하여 된 것이 많고, 後者는 虛로 인해 된 것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實則失氣, 虛則遺尿.”라 한 것이다.

### III. 結 論

『金匱要略·水氣病脈證并治』의 內容 中에서 水氣病을 分類하는 方法에 대하여 研究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水氣病을 脈·症·因의 差異에 根據하여 水氣病을 風水·皮水·正水·石水·黃汗의 五種으로 分類할 수 있으며, 水氣病의 形成과 五臟의 關係에 根據하여 水氣病을 心水·脾水·肝水·肺水·腎水 등의 五種으로 分類할 수 있으며, 水氣病의 演變情況에 根據하여 水分·氣分·血分으로 區別할 수 있으니 이는 水氣病의 病機·病位와 病情變化 등을 把握하는 데에는 보다 편리한 方法이라고 하겠다.
2. 五臟機能의 失常이 水氣를 發生시키는 根木이 되므로 五臟水를 치료할 때에는 반드시 證狀의 表裏寒熱虛實을 따져 이치에 맞게 하여야 한다. 腎水를 예로 들면, 腎陽虛로 인해 水聚成腫한 경우, 治法은 마땅히 溫腎利水해야 하니 貞武湯을 選用할 수 있다.
3. 心水의 原文의 ‘煩而躁’에서 躁는 悸로 바꾸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參考文獻

1. 高學山, 金匱要略脈證治療,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78.
2. 郭秀梅 : 日本醫家金匱要略注解輯要, 北京, 學苑出版社, 1999.
3. 南京中醫藥大學: 金匱要略學習參考資料,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4. 丹波元簡: 『金匱玉函要略輯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5. 丹波元胤: 『金匱玉函要略述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6. 唐宗海: 金匱要略淺注補正(明青名醫全書大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7. 朴憲在譯註 完譯: 金匱要略, 書苑堂, 1978.
8. 範式則: 金匱辨解(近代中醫珍本集), 北京,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1.
9. 孫思邈: 千金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6.
10. 徐彬: 金匱要略論注(中國醫學大系), 麗江出版社, 1987.
11. 沈明宗, 沈注金匱要略, 中國醫學大成(第二冊),

-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12. 楊醫亞: 金匱中醫自修讀本, 北京,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6.
  13. 嚴鴻志: 金匱廣義(近代中醫珍本集), 北京,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1.
  14. 蘇寶剛: 金匱要略講義, 北京, 學苑出版社, 1995.
  15. 葉子雨: 金匱要略闕疑(近代中醫珍本集), 北京,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1.
  16. 吳謙: 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17. 王琦: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補社, 1983.
  18. 王玉興: 金匱要略方論校注語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9. 李彤: 金匱要略廣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20. 李克光: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21. 李克光: 金匱要略譯釋, 北京,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3.
  22. 李東建: 國譯 金匱要略, 書苑堂, 1996.
  23. 尤怡: 金匱要略心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2.
  24. 魏荔彤: 金匱要略方論本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25. 俞嘉言: 醫門法律(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26. 張志聰: 金匱要略注(明青名醫全書大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7. 曹家達: 金匱發微(近代中醫珍本集), 北京,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1.
  28. 朱光被: 金匱要略正義(近代中醫珍本集), 北京,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1.
  29. 周揚俊: 金匱玉函經二注(傷寒金匱溫病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30. 陳念祖: 金匱要略淺注, 北京, 文光圖書有限公司, 民國 67年.
  31. 陳伯未: 金匱要略類病釋(近代中醫珍本集), 北京,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1.
  32. 洪元植 尹暢烈: 中國醫學史, 一中社, 2001.
  33. 黃元御: 金匱懸解(黃元御醫書十一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